

NAJU  
*Web  
Contents*

2021년 06월 24일 03시 51분

# 목차

목차	2
인사말	3

## 2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의 땅, 나주

나주는 2천년의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"역사의 땅"입니다.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목(牧)으로서의 지위입니다. 나주는 983년(고려 성종 2) 전국 12목의 하나로 나주목이 되었으며, 이후 거란의 침입 때에는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와 10여 일 동안 머무르며 임시왕도의 역할을 수행한 "고려왕조의 최후의 보루"였습니다.

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나주목의 지위는 축소되지 않았으며, 전라우영이 설치돼 군사적 거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게 나주는 천 년 가까운 세월 동안(912년) 300명이 넘는 목사가 거쳐 간 "천년목사고을"이자 "호남의 작은 서울"이었습니다.

## 2009년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거듭난 목사내아

나주목사내아는 바로 그 목사의 살림집으로, 나주읍성 안에 있던 여러 관아 건축물 중 지금까지 남아 있는 나주만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. 일제강점기 때 나주읍성과 더불어 훼손된 목사내아 전면적인 해체·복원 작업을 거쳐 2009년 숙박이 가능한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.

## 목사의 氣를 받아가는 명당

목사내아 금학헌에는 역대 나주목사 중에서 최고의 목민관으로 손꼽히는 유석증 목사와 김성일 이름을 딴 방이 있습니다. 이곳에서 "목사의 (氣)"를 받아간 후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 저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가장 즐겨 찾는 곳이 이곳 목사내아입니다.

목사내아 인근에는 서성문, 정수루, 금성관, 나주향교 등 나주읍성권의 유서 깊은 문화유산과 "나주곰탕의 거리"가 있어 전통의 멋과 맛을 함께 느껴볼 수 있습니다.



"목사내아에서의 하룻밤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 
좋은 행운을 함께 나누었으니 바랍니다"

NAJU

# ***Web Contents***

